

2026년 ANC 봄학기
Zoom 을 통한 제자(목양/양육) 사역
김정복 목사 말씀(기도) 세미나

주제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눅11:2)

1. “주님의 기도” 요약 강해 2/ 3 (화)

2/ 3(화)-3/17(화) (7주간) 오후 7:30-9:00

신청 및 문의 :

장대수 팀장(562-896-5701)/정훈 목사(434-229-0679)

성경(기도) 세미나 강의일정(講義日程)

7 주간의 기도 세미나

2026. 2. 3. (화) : 1. “주님의 기도” 요약 강해

2026. 2.10. (화) : 2. 예수님의 삶을 통한 기도교육

2026. 2.17. (화) : 3.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교육

2026. 2.24. (화) : 4. 성경적 기도란 어떤 것인가?

2026. 3. 3. (화) : 5. 기도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2026. 3.10. (화) : 6.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2026. 3.17. (화) : 7. 기도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소(聖所)와 지성소(至聖所)



주제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눅11:2)

1. “주님의 기도” 요약 강해

예수님께서 사역(事役)하실 때의 시대 배경 / 로마시대

통치/정치적으로 보면
통치자/ 로마인

성경적/영적으로 보면
택한 백성/ 유대인

공관복음은 왜
마태/마가/누가 복음인가?
Son of Man(사람의 아들)/대속

백성은
정복자/ 로마인
피정복자/ 모두 노예들

피 정복자
유대인/ 히브리 민족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

백성은
유대인 (히브리 민족)
이방인 : 로마인/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은
로마(가이사 아구스도)/
헬라/메데 파사/바벨론/
앗수리아/갈데아/
가나안 일곱 속들/애굽/
유대인들(야곱)/요셉

마태복음/사자복음(마1:1)
유대인을 위하여
마가복음은/소복음(막1:1-3)
로마인을 위하여
누가복음/사람복음(눅1:1-5)
헬라인/이방인을 위하여

요한복음/독수리복음(요1:1)
온 인류를 위하여
Son of God(하나님의 아들)/사탄

“주님의 기도”는 왜 둘인가? (눅11:2-4/ 마6:9-13)

마태
복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유대인/ 이방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6:9-13)

마태복음 :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마6:5-6)과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마6:7-8)/ 주기도(마6:9-13)

누가
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삶/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눅11:2-4)

누가복음 : 예수님의 삶(눅11:1)과 말씀(눅11:2-4)을 통한 기도교육/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한 기도교육

삶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눅11:1-2)/ 주기도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신가? (눅11:2-4/마6:9-13)

Elohim(엘로힘)/Almighty God/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Jehovah(여호와)/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창3:14)

Adonai(주인/Master)/ 나의 주님(My Lord)되신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Shield)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Reward)이니라. (창15:1)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Our Father in heaven)”는
태초에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Elohim,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Jehovah,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Adonai 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기도이다.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Our Father)여”는
“나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기도이다.
이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서 택하시고 속량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Our Father)이시며, 하나님(God)이라는 뜻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3)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믿는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회개하고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온
죄인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회개기도”이다
이는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왔다

(눅15:17-20)

2) 아버지께 대한 청원/영원대(Eternity zone)/(창1:1, 요1:1/태초)

아버지의 이름(Name)/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

(출3:14-15/계4:8)

아버지의 나라(Kingdom)/낙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지성소(OT)

아버지의 나라는
성도의 마음 안에 있다(NT)

(눅17:20-21/ 23:43/마27:51/히10:19-20/고전3:16/6:19)

아버지의 뜻(Will)/ 잔(盞)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 선악과 반납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다

(눅22:42)

3) 우리에게 대한 청원/현재,과거,미래(Time zone)/(창1:14-19/넷째 날)

**양식(Daily Bread)의
문제(현재)**

“오늘 일용할 양식(糧食)을 주시옵고”

육(Flesh)의 양식과 영(Soul)의 양식
현재의 양식(육/영)

(마4:4)

죄(Sin)의 문제(과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과거의 죄(은혜/회개)

**시험(Temptation)과
악(Evil)의 문제/사탄(미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미래의 시험과 악(믿음)

4) 나라(Kingdom)와 권세(Power)와 영광(Glory)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6:9-13)

(1) 아버지의 이름(Name)에 대한 청원/여호와 하나님(요1:1/엡1:4)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your name.)”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이다.**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출20:7)**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계4:8)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and is to come”.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1)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2)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령(a living being)이 되게 하셨다.
따라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Spirit)으로 창조된,
거룩한 생령(a living being)이었다.

아담으로 인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구원

4)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었으므로(창2:17),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거룩한 영을 잃게 되었다.

5)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사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6)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길

- 7)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사,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셨다(딤후4:5)
- 8)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
- 9)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1:16)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 10)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하여 거룩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될 때에,
피조물인 사람에게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2) 아버지의 나라(Kingdom)에 대한 청원/ 낙원/(지)성소/성도의 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며,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義)와 평강(平康)과 희락(喜樂)이라(롬14:17)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재(臨在)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4:17)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17:20-21)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聖殿)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聖靈)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3:16/6:19)

어떻게 영접(迎接)하는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1:11-13)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10:9-10)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2:8-9)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1:3-6)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은혜로 보내셨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8:14-17)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4:6-7)

(3) 아버지의 뜻(Will)에 대한 청원/ 잔(蠶)(갈2:20/롬1:16-17)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특히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蠶)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눅22:41-44)/ 예수님의 대속(代贖)의 기도

이 잔(盞)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신 잔(盞)이란 무엇인가?

이 잔(盞)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선악과(善惡果)의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 반납(返納)하는 것이다

내가 먹은 선악과의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 반납(返納)한다는 것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므로 나에게 생긴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자아(自我), 곧 나의 지정의(知情意)를

하나님께 반환(返還)하므로, 독립된 자아(自我)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罪)를 대속(代贖)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成肉身)하신 로고스(Logos), 곧 하나님이시지만
겻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잔(盞)을 마신 것이다

이 잔(盞)은 영적(靈的) 십자가이다

나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따먹은 선악과의 열매를 매일 하나님께 반납(返納)하여야 한다
내가 따먹은 선악과의 열매를 반납(返納)하는 길은
내가 매일 죽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否認)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9:23)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15:31)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2:20)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1:16-17)

3) 우리에게 대한 청원(시간대/Time zone/창6:3/시90:10/모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罪)를 사(赦)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는 우리에게 대한 간구(Supplication)와 도고(Intercession)이다.

첫 번째 청원/현재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daily bread)을 주시옵고,
두 번째 청원/과거 : 우리에게 죄(debts)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 청원/미래 : 우리를 시험(temptation)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evil)에서 구하시옵소서

(1)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현재(시간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성경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참된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은 “간식(間食)”이 아니고,
매일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밥과 같은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은

성도가 매일 먹어야 하는 육신의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과

**하나님의 뜻을 행(行)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예수님의 양식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참된 양식이다.**

육신(Flesh)의 양식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양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건강에 유익한 정결한 양식이다.

1) 구약성경에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레11:2-23, 신14:3-21)
피는 먹지 말라고 되어있으며(레17:11),

신약성경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금지한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우상의 제물)과 음행(육신의 정욕/요일2:16)과
목매어 죽인 것(죽은 피)과 피(산 피/生血)를 멀리하라는 것이다(행15:20)

2)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탐식, 술/포도주, 담배, 마약 등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들이다(잠23:29-35/고전10:31)

3) 구원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고전3:16), 성령의 전이며(고전6:19)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영(Spirit)과 혼(Soul)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1) 영혼의 양식은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심령으로 먹는 양식이다.

이 양식은 매일 먹어야 하는 필수적인 주식(主食)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마4:4)

2)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行)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요4:34)

3)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요6:54-57)

(2) 우리의 죄에 대한 청원/과거(시간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s forgiven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청원이다.

왜 조건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赦)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였을까?
그 이유는

성도는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다

(1) 성도(Saint)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빛진 자이다.

(2)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3)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었으므로 (갈2:20)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미 용서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이미 용서해 준 것같이,
다시 범하는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다.

내게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일곱 번 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마18:21-22)

우리는 우리의 죄 값으로 죽어야 할 몸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피 값으로
죄 사함을 얻고, 성도(Saint)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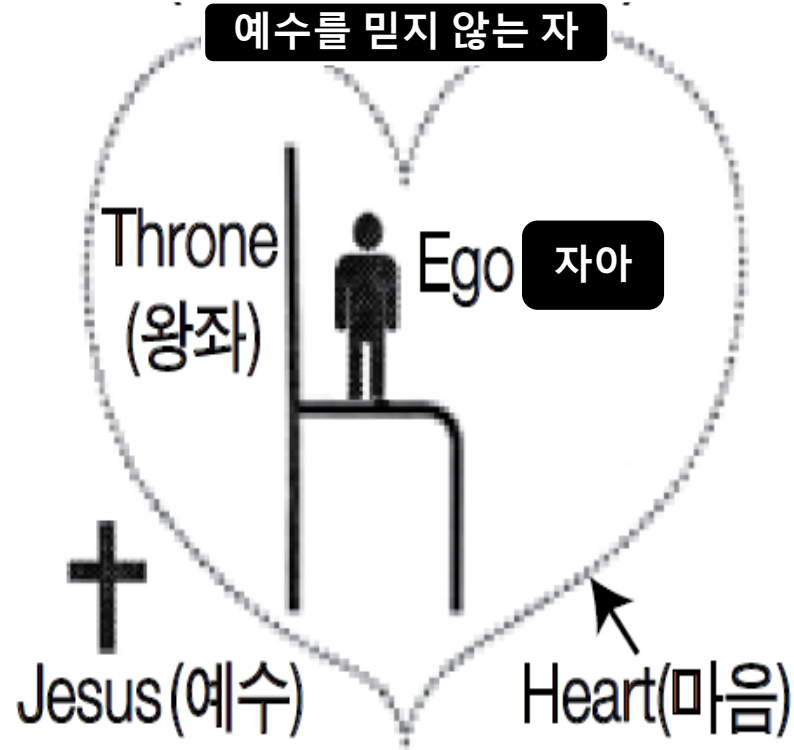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6:14-15)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18:35)

세 종류의 사람들

Non Christian의 삶
믿지 않는 자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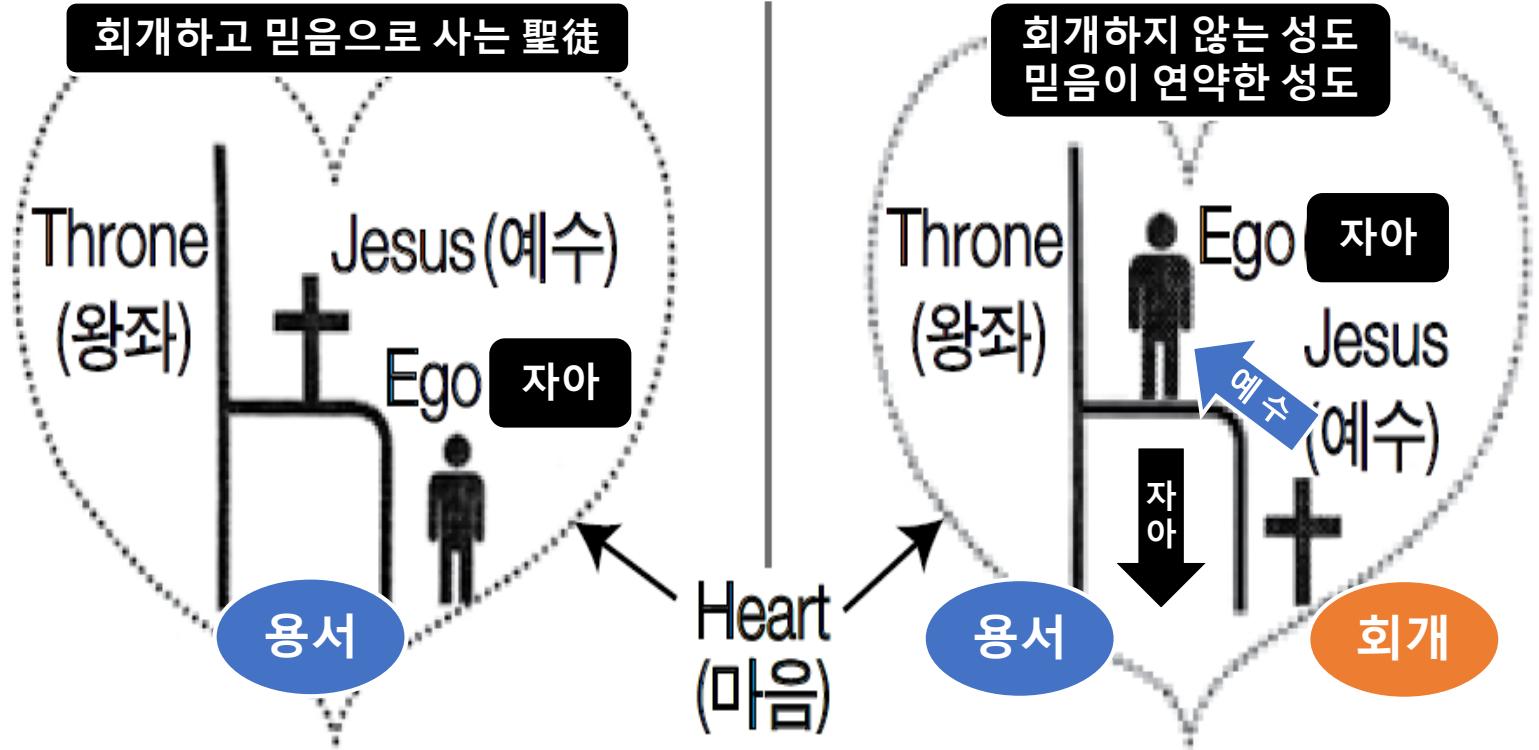


고전 2: 14

육(肉)에 속한 자

Natural man

Christian의 삶
믿는 자/ 성도의 삶



고전 2:15-16

성령 충만한 자

Spiritual man

고전 3:1-3

육신(肉身)에 속한 자

Carnal man

(3) 우리의 시험과 악에 관한 청원/미래(시간대)

우리를 시험(temptation)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evil)에서 구하시옵소서

(1) 어떻게 사탄(satan)의 시험(temptation)을 막을 수 있을까?

(2) 앞으로 오게 될 사탄의 시험(temptation)을

어떻게 예방(豫防)할 것인가에 대한 예방기도(豫防祈禱)이다.

사탄의 시험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

오직 “깨어서 기도하므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交通)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防牌/Shield)가 되시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사탄이 시험하지 못한다.

다만 악(惡/evil)에서 구하시옵소서

(3) “다만 악(evil) 에서 구하시옵소서”하는 기도는
가) 하나님은 말씀(Logos)이시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 때에 악(惡)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Spirit)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금식과 회개와 성령 충만할 때에 악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에 악(惡)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곧 성육신하신 말씀이므로,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악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악(惡)에서 벗어 날 수 있다.

4) 송영

나라(Kingdom)와 권세(Power)와 영광(Glory)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태초에 천지와 만물과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시간과 공간에 구속 받지 않고 초월해 계시며

천지 모든 곳에 항상 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항상 현재이며, 영원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카이로스(Kairos)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항상 현재인 것이다.

